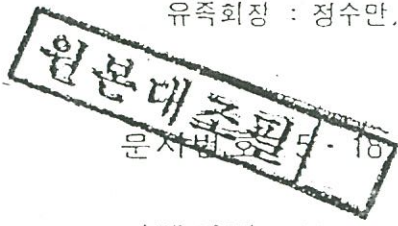


5·18민중항쟁재단체협의회

우 502-260 광주광역시 서구 빙촌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관내 전화 / 유족회: 383-5180, 부상자회: 383-1518, 유공자동지회: 383-5151
 전승/유족회: 383-5518, 부상자회: 384-1518, 유공자동지회: 383-0991.
 유족회사무총장 : 박경순, 부상자회사무총장 : 김태현, 유공자동지회사무총장 : 이경희, 이동계
 유족회장 : 정수만, 부상자회장 : 김우식, 유공자동지회장 : 이무현, 이성길



문서번호 05-18-05-0601

시행일자 2005. 6. 2.

수 신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참 조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연구실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결 재	[Handwritten Signature]
	시간			
	번호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전남도청 일원 사적지 원형보존의 건

1. 귀 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아 문화전당”을 2010년 5·18 30주년에 맞춰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인 바, 80년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남도청 일원 사적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달라’는 5월재단체의 확고한 입장을 공문 또는 면담을 통해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위에서 요구한 ‘전남도청 일원 사적지’라 함은 도청 건물 전체(본관동, 민원동, 도경 건물외 2동, 뒷담장 포함)와 도청광창, 분수대, 상무관, 금남로 등을 말합니다.

4. 위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건축물들은 80년 당시 치열하게 투쟁했던 광주정신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사적지는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습니다.(사례 : 상무대 법정, 영창)

5. ‘아시아문화전당 건축물’은 도청 일원 사적지를 일체 훼손하지 않고 연계하여 도청 인근에 들어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화가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6. 저희 5월제단체에서 요구한 위 2,3호에 대한 귀조직의 입장을 금
년 6월 11일(토)까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만약 답변이 없으면 위 2,3호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원혼대조필

2005. 6.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
재단법인 5·18기념채

